



야단법석 VS 감잡았어

파업효과 없다더니 웬 야단법석?

파업효과가 미미하다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인근센터 제휴인력, 지정점 인력, 전과상까지 끌어다가 대체인력을 투입하느라 야단법석을 떨었다.

센터 사장들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회사는 부득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며 부탁(?)한다. 하지만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하루 빨리 파업을 중단하고 교섭에 집중해달라.”던 경총은 제대로 된 안을 내지 않고 있다. 뭘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대체인력 투입하면서 아무리 야단을 떨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대체인력 투입 당장 그만두고, 성실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면 되니 어렵게 돌아가지 마시라. 그 때까지 경기췌는 우리 스타일대로 간다! 고객들 불편도 경기췌 도우미가 고객만족(CS)으로 책임질테니 너무 걱정 마시길.

컨셉 제대로 잡았네

2월 7일은 故최종범열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00일이 된 날이자, 그의 서른넷 생일이었다. 삼성은 지난 12월 20일 생활임금보장, 노조활동보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故최종범열사와 한 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범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원역 앞에 섰다.



故최종범열사를 기억하며 담담하게 문화제를 진행했다. 공사 중이라 시끄럽고 비좁았지만 경기췌들은 더욱 빛났다. 평택 이주용조합원과 분당 길유림조합원의 추모곡은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걸음을 멈춘 시민들은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문화제에 녹아들었다. 마지막엔 경기췌들의 삼바춤과 성남 이우식조합원의

춤 공연이 수원역을 들썩였다. 조합원들, 여중생, 아주머니, 할아버지 길가는 많은 시민들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살아있는 우리들의 생명력으로 최종범을 기억하고 그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추모문화제가 끝나고 여기저기서 “경기는 우리 컨셉 이제 딱 잡혔네!”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우리 고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조합원들의 재능으로 진행되는 췌 콘서트! 다음엔 더 제대로 준비해서 75년 무노조삼성을 깰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을 더욱 화끈하게 폭발시키기로 했다.

사람을 녹인 반도체공장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서비스엔지니어들이 오랜만에 영화관 나들이에 나섰다. 영화 볼 자유마저 제한되는 삼성왕국에서 용감한 도전을 한 그 영화, “입소문 타고 개봉 3일 만에 12만 돌파”라는 기록을 만들어 내고 있는 영화, 바로 <또 하나의 약속>을 보기 위해서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분회별로 영화보는 팀과 영화홍보팀으로 나누어 움직였다. 예상대로 당황한 영화관 측의 대응이 약간 있었다. 분당조합원들은 남들 다 찍는 인증샷 찍으려는데 극장관계자들에게 저지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랑이가 벌어지자 시민들이 “아저씨가 조용히 있으면 돼지, 왜 못하게 하나!”며 우리 편을 들어줬고, 극장관계자는 “죄송하다”며 도망갔다. 우리를 막으려다가 오히려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줬다.

“삼성이 노동조합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인건비와 돈이 아니었다.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반도체공장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웠던 것이다.”

“서비스에서는 임금을 녹였지만, 반도체에서는 사람을 녹였다. 집안이 어렵고 불우한 자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람을 녹여 파는 삼성전자! 저들의 악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노조를 만들기 전에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았다”던 삼성엔지니어들은 무권리 상태로 기업살인에 희생된 주인공의 처지가 자신들과 닮았다며 많이 울었다. <또 하나의 약속>이 삼성공화국을 뚫고 제작되고 상영되는 기적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의 75년 무노조신화를 깨뜨리는 기적과 닮았다.

누군가는 이 영화를 막으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자 한다. 우리도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삼성을 바꾸고 우리 권리를 지킬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 사람의 권리 모두 녹여 파는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도 바꾸자! 삼바삼바!



삼성을 바꿔서 삶을 바꾸자!

진짜 교섭국면 원한다면

지난 일주일간의 파업을 통해 우리의 파업열기를 확인했다. 동시에 사측이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 등 얼마나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확인했다. 사측교섭대표인 경총은 계속해서 “교섭국면으로 가자”고 했다. 그러나 교섭국면으로 가도 싶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지난 5일 교섭에서도 모호한 답을 했다. 연차수당, 리스차량 제공 등 10여개의 새로운 안을 냈지만, 박성주 경인부지회장은 “아예 안을 내지 않으면 더 강력한 투쟁을 하면되고, 흡족한 안을 내면 파업을 즉각 중단할 수도 있지만 애매하게 안을 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우리는 지난 1주간 파업을 이어왔다.

이제 사측은 ‘시간끌기’와 ‘성실교섭’ 중 무엇이 진심인지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항간에는 “5월까지 가야 단협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측의 얘기가 떠돌기도 한다. 반대로 사측교섭대표인 경총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통해 교섭을 빨리 진척시키자는 엇갈리는 얘기를 했다.

사측은 임금안 제출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답한 적이 없다. 지지난 교섭에서는 임금안을 만들기 위해 2차례의 사장단 협의를 했다고 했다. 그런데 경기남부 사장들 대부분은 경총과 안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왜 이렇게 엇갈리는 것인가. 물론 모든 센터의 사장들을 다 불러서 안을 논의한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럼 함께 얘기한 사장은

누군가. 교섭권을 위임한 우리 센터 사장들은 진짜로 교섭을 위임한 것이 맞을까? 아니면 삼성전자서비스의 오더를 받은 경총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수인에 불과한 것인가?

사측은 ‘시간끌기’ 말고 ‘임금안’을 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노조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안을 내서 교섭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임금과 수당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재원이 필요하다. 첫째로 소비자로부터 제품 가격으로 미리 받는 a/s비용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가 중간에 착복하지 않고 제대로 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처우개선을 위한 금액을 삼성전자서비스를 거쳐 각 센터에 줄 생각이 있는 것인가? 소문들이 무성한 상황이다. 추가로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돌아 올 것인가. 작년에도 협력사를 위해 200억을 배정한다고 했는데 그 200억 중에 우리에게 돌아온 몫이 있었던가. 이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확인 될 것이다.

둘째로는 각 센터의 사장들이 노동자에게 주어야 할 몫을 가로채지 않고 제대로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회계장부공개를 요구해 왔다. 연차수당을 비롯한 빼앗긴 임금을 찾는 노력과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오후 2시에 평택에서 교섭이 열린다. 교섭국면으로 가는 지는 이 자리에서 다시 검증 될 것이다.